

한국산림기술인회 소식지

No.05

기술인회 뉴스레터



한국산림기술인회

발행일 : 2023년 7월 28일 금요일 www.tkfea.or.kr



2023+No. 05 주요활동 | 언론·보도 | 인터뷰 | 기고문 | 이벤트 | 읽을거리 | 공지사항



한국산림기술인회
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



한국산림기술인회 뉴스레터 원고모집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한국산림기술인회 뉴스레터는 회원과 소통 강화를 위해 매달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뉴스레터를 통해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픈 이야기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참여대상

2023년 회비를 납부한 한국산림기술인회 정회원

모집내용

산림 관련 사진, 기고, 수필, 경험담 등 이야기 장르 불문

접수기간

상시모집

제출방법

이메일 (shekdms@tkfea.or.kr) 또는 우편 및 팩스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6층 (둔산동, 사학연금회관)
팩스 : (042) 489-8581

원고분량

A4 1~3장 이내

유의사항

원고 보내시는 분의 기본사항(이름, 연락처, 주소)을 반드시 함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산림기술인회 뉴스레터는 매달 발행됨으로 산림과 관련된 이야기를 연중 모집하며,
주제에 따라 원고 게시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는 최대 10p이내 A4 한장 이상 분량으로, 사진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를 통해
뉴스레터를 바로 확인해보세요!



한국산림기술인회 이법법인 여덟일?

한국산림기술인회회로 조속히 여덟일!

이법법인 여덟일! 한국산림기술인회회로 조속히 여덟일!

이법법인 여덟일! 한국산림기술인회회로 조속히 여덟일!

이법법인 여덟일! 한국산림기술인회회로 조속히 여덟일!

이법법인 여덟일! 한국산림기술인회회로 조속히 여덟일!

이법법인 여덟일! 한국산림기술인회회로 조속히 여덟일!

이법법인 여덟일! 한국산림기술인회회로 조속히 여덟일!

02 7월 주요활동 및 소식

시·도지회 간담회…“발전방향 모색”
 산림청과 업무협약의 간담회 진행
 한국산림기술인회 전 직원, 소통 간담회 가져
 “한국산림기술인회 홈페이지 재구축” 본격 착수
 첫 자문위원회 회의의 열고 현안사항 논의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 실시

신규 등록 및 소재지 변경 업체 대상...업체 운영 애로사항 청취 등

이법법인 여덟일! 한국산림기술인회회로 조속히 여덟일!

이법법인 여덟일! 한국산림기술인회회로 조속히 여덟일!

이법법인 여덟일! 한국산림기술인회회로 조속히 여덟일!

이법법인 여덟일! 한국산림기술인회회로 조속히 여덟일!

이법법인 여덟일! 한국산림기술인회회로 조속히 여덟일!

이법법인 여덟일! 한국산림기술인회회로 조속히 여덟일!

04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 실시

신규 등록 및 소재지 변경 업체 대상...업체 운영 애로사항 청취 등

06 삼척국유림관리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산림 특화 안전보건교육

08 한국산림기술인회 인터뷰 코너

한국산림기술인회 강원지회장 지귀현

삼척국유림관리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산림 특화 안전보건교육

이법법인 여덟일! 한국산림기술인회회로 조속히 여덟일!

이법법인 여덟일! 한국산림기술인회회로 조속히 여덟일!

이법법인 여덟일! 한국산림기술인회회로 조속히 여덟일!

이법법인 여덟일! 한국산림기술인회회로 조속히 여덟일!

이법법인 여덟일! 한국산림기술인회회로 조속히 여덟일!

이법법인 여덟일! 한국산림기술인회회로 조속히 여덟일!

15 산림기술인들이 알아둬야 할 산림 철학

한국산림기술인회 자문위원(자문단) 마상규 자문단장

20 읽을거리

산림기술자 자격증 대여 및 이중취업 위법행위 근절
 현직 소방관에게 직접 듣는 구급용품 사용법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교육통합시스템 방한후기 이벤트
 산림 헤드라인 뉴스
 지난호 이벤트 정답발표
 법령 정보

29 공지사항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교육통합시스템 QR코드 생성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교육과정 교육생 모집 안내
 한국산림기술인회 공지사항 및 회원동정

기술인회 뉴스레터

Vol. 05

이법법인 여덟일! 한국산림기술인회회로 조속히 여덟일!

이법법인 여덟일! 한국산림기술인회회로 조속히 여덟일!

이법법인 여덟일! 한국산림기술인회회로 조속히 여덟일!

이법법인 여덟일! 한국산림기술인회회로 조속히 여덟일!

이법법인 여덟일! 한국산림기술인회회로 조속히 여덟일!

이법법인 여덟일! 한국산림기술인회회로 조속히 여덟일!

한국산림기술인회 이번달엔 어떤일을?

한국산림기술인회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시·도지회 간담회...“발전방향 모색”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시·도지회 지회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술인회 정병천 회장, 김영삼 서울인천경기지회장, 지귀현 강원지회장, 김중호 대전세종충남지회장, 한상범 충북지회장, 송승의 제주지회장, 정중부 부산울산경남지회장 등 총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지회 활성화 방안과 현안사항 및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과 업무협약의 간담회 진행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지난 7월 5일 산림청 일자리창출팀과 업무협약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기술인회 정병천 회장과 안영섭 본부장, 전제은 본부장, 유난희 팀장 및 일자리창출팀 직원 등 총 6명은 소통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논했다.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월간보고회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지난 7월 6일 '23~24년 산림기술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월간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보고회는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의 6월 업무보고와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했으며, 기술인회 위탁사업본부 직원 4명, 산림청 일자리창출팀 담당자 3명, 수행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산림기술 민간위탁사업 실무협의회 실시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지난 7월 6일 '23년 산림기술 민간위탁사업 실무협의회'를 실시했다. 협의회는 기술인회 위탁사업본부 및 산림청 일자리창출팀 직원 등 총 7명이 참여한 가운데 23년도 산림기술자·산림기술용역업 관리 등 민간위탁사업과 강원도·강원특별자치도 명칭 변경 관련 업무 개선 등에 대한 논의로 이뤄졌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전 직원, 소통 간담회 가져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지난 7월 1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특히 소통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술인회 정병천 회장이 직접 간담회에 참석해 직원들에게 직원 간 상호 협조하며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당부하고, 건의 사항 및 업무 제안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충북도청·충북산림환경연구소 방문...“교육 홍보”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지난 7월 13일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교육 홍보 및 안내를 위해 충청도청과 충북산림환경연구소를 방문했다. 한편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은 산림기술자 및 단체 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2023년 사면안정해석 실무교육과정 교육생을 상시 모집 중이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한국산림기술인회 홈페이지 재구축” 본격 착수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지난 7월 18일 홈페이지 재구축 사업 착수 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에 이어 사업 추진방향, 협조요청 사항 등 의견수렴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한편 기술인회는 내달까지 홈페이지 재구축사업 분석 및 설계 과정 실무자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첫 자문위원회 회의 열고 현안사항 논의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지난 7월 19일 제1회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기술인회 자문위원은 산림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했으며, 이번 회의는 자문위원회 구성 후 첫 회의이다. 이날 기술인회 정병천 회장, 고문 및 자문단 등 총 6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술인회 발전을 위한 현안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보도자료



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 실시

신규 등록 및 소재지 변경 업체 대상...업체 운영 애로사항 청취 등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및 변경 신고 신청업체와의 소통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기술인회에 따르면 그동안 산림기술용역업 신고는 제출 서류를 위주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처리하는 등 단계별 절차를 통해 복잡한 과정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산림기술용역업체 측에서는 업체 운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산림사업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러한 요구에 기술인회는 지난 5월부터 신규 등록 및 소재지 변경 등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에 나섰으며, 산림기술용역업체와 소통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현장 방문을 통해 산림기술용역업체 관계자에게 지난해 구축한 산림기술통합관리시스템 이용방법을 설명하고 업체 사업 실적 등록 필요성과 경력관리 등록 방법 등을 안내했다. 또 산림기술용역업체 운영의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에 따른 기술인회의 역할도 설명했다.

이에 한 산림용역업체 관계자는 “기술인회의 도움을 받아 법정교육 이행과 사업 실적신고를 함으로써 업체 품질에 좋은 영향을 줄 거 같다”며 현장 방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기술인회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에 속도를 내고 간편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정병천 회장은 “앞으로도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을 통한 효율적인 지원과 모범업체의 안정적인 활동이 이뤄지도록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 모습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산림기술용역업체 등록 및 변경 신고 신청업체와의 소통강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현장 방문을 진행하고 있다.

보도자료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삼척국유림관리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산림 특화 안전보건교육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이 산림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자들의 안전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에 나섰다.

교육원은 지난 7월 7일 강원도 삼척국유림관리소 소속 재정일자리사업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3년 제6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으로, 근로자 32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원도 삼척시 삼척동해태백 산림조합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강의에는 산림분야 전문 강사들이 초빙됐으며, 아차 사고 및 부주의와 작업 현장 안전 관리 등 산림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위험요소 파악, 안전사고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교육 과정을 꾸렸다.

세부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산업 보건 및 직업병 예방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유해·위험 작업 환경 관리 ▲산업안전 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응급 시 처치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교육원 김명환 원장은 근로자들에게 산림안전보건의 현주소 및 문제점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산림분야 안전보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교육에서는 과거 실제 발생했던 산림작업 안전사고 사례 원인·대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응급사고 시 대처방안 등 재해율 감소 및 사고 경중 최소화를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아울러 교육원은 산림현장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현장 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 강화와 인식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다.

교육을 마친 후 한 교육생은 “산림현장 근로자 대부분이 50대 이상 고령자인 현실을 반영하고 교육을 진행해 타 안전보건교육과는 차별성이 있었다”며 “실제 현장 근로자인 교육생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주는 교육이었기 때문에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어 작업에 도움 될 거 같다”고 교육에 대한 만족감을 보였다.

강의를 진행한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박정제 외래교수는 “산림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다르게 응급처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중증 환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라며 “이는 즉 현장에서 사고 즉시 응급처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병원 이송 후 응급처치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모습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은 지난 7월 7일 삼척국유림관리소 소속 재정일자리사업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32명을 대상으로 강원도 삼척시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회의실에서 ‘2023년 6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임업의 기계화 필요성”

한국산림기술인회 자문위원 겸
기술인회 강원지회 지귀현 지회장 인터뷰





올해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산림 자원, 취약한 경영기반, 낮은 경제성과 생산성 등으로 많은 난관에 부딪혀 왔지만, 치산녹화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임업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농촌의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력은 점차 감소하고 인건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점차 저하되고 있으며, 임도 및 기계 등의 경영기반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임업 기계화가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이는 인력에 의한 단순 작업을 작업 효율이 높고 운영경비가 싼 기계를 이용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며, 생산 비용을 절감해 작업원을 힘든 육체노동으로부터 해방시킨다.

구체적으로 임업 기계는 산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경영수단을 제공하며, 산림 조성, 관리 및 생산물 수확 등 산림경영활동에 활용되는 모든 장비를 말한다. 좁게는 임업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작된 체인톱, 집재기, 임업용 트랙터 등 임업 전용 장비를 뜻한다.

이처럼 임업 기계화는 노동생산성 향상, 생산 비용 절감, 작업시간 단축, 작업원 노동부담 경감 등의 효과를 갖고 있으며, 나날이 그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십 년간 산림 및 임업 분야에서 일해온 한국산림기술인회자문위원 겸 강원지회 지귀현 지회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현재 맡고 있는 업무와 직책

전국산림기능인협회장을 8년간 역임했으며, 이후 협회에서 고문직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림기술인회 강원도지회장은 물론 자문위원을 하고 있으며, 또 지난 30년간 회원으로 활동하던 국제로타리클럽 3730지구 홍천로타리클럽에서 지난 7월 1일 자로 원로회장에 취임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Q.산림기능사 40년 생활 동안의 보람과 업적은?

산림작업을 전문 직업으로 하는 국가인증 산림기능사 제도가 도입된 지가 40년이 됐으며, 저 또한 산림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국유림영림단을 운영한지도 4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림작업에 대한 전문 기술도 부족하고 자격제도와 직업교육제도도 없었으며, 직장도 고정화되지 않았습니다. 국유림 관리소별로 12인을 한 팀으로 2년간 직업교육을 통해 전문화시키고 국가자격제도를 뒤 전업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유림영림단을 단체화시켜 존재가치를 널리 알리고 영림단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전국국유림기능인 협회를 설립해 단합된 노동단체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국유림의 산림자원은 영림단의 숲가꾸기와 산림보호작업을 통해 ha당 200m³ 가까이 육성해 왔습니다. 산림기능인과 산림기사들이 협력해 순환 경영 시대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산림기술인 강원지회를 설립해 현재는 강원지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산림사업체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람이란 산림작업을 전문 직업으로 발전시키고 기능인들의 고용환경 발전 및 국유림

산림노동자를 단체화시켜 산림의 사회적 기능을 높여가는데 일조를 한 것입니다. 특히 IMF 위기 시 산림을 국민의 일터로 개척하고 산림 일자리를 크게 확대시켜 산림기술인회까지 발전시킨 계기를 마련하는 데 일조 한 것에 큰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Q.산림과 임업의 여건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동안 산림자원은 노령화되고 있으며, 50년생 이상의 임분이 2/3 정도로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산림의 대부분이 간벌재를 생산하거나, 직경이 20cm가 넘어 생산을 해야 할 시기에 와 있으나 목재생산이용사업은 극히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숲가꾸기 시대에서 목재를 생산 및 이용하고 다시 조림을 해야 할 시기에 와 있으나, 산림경영여건은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임도와 작업도의 시설 밀도가 낮아 산림지대에 접근이 어렵고 산림기능인은 노령화되고 있으며, 생산장비는 전근대적이면서 위험하고 환경훼손인 높은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등 산림 임업경영의 기반이 극히 불량한 상황에 있습니다.

목재 생산과 순환 경영이 정체되면 숲가꾸기와 조림사업 물량도 감소되므로 일자리 감소도 우려됩니다. 외국 사례에 의하면 간벌과 목재수확작업 일자리가 전체 산림 일자리의 50%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간벌과 수확 갱신 사업, 임도와 작업도시설사업, 산림바이오메스 생산과 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개발이 긴급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Q.젊은 노동력 양성과 기계화 필요성은?

조림과 숲가꾸기 작업에 비해 간벌과 수확 갱신을 위한 목재 생산은 무겁고 힘들며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입니다.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성능 기계장비를 조정할 수 있는 젊은 노동력과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젊은 노동력의 투입과 기계화 수준을 높여가는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현실 문제를 타결할 수 있습니다. 젊은 노동력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성향에 맞는 고성능 기계화가 필요합니다. 과거 인력 위주의 목재 생산 시는 1일 1인 1m³ 생산을 하였으나 전자식으로 조정하는 장비 이용 시에는 1일 10m³까지 생산하는 시대가 돼 있습니다.

임업을 기계화시킨다는 것은 인간을 중노동에서 해방시키고 안전한 작업이 가능하며, 노동생산성을 높여 임업의 경쟁력을 높여가는 데 있습니다. 즉, 산림기능인들이 보다 인간답게 일을 하면서 소득 안정성을 높여가므로 목재시장과 가공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임업 기계화는 한국 임업 진흥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Q.임업 기계화를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임업생산을 기계화시키는 것은 산업화를 시켜나가고 산업으로서의 임업을 지속화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와 시민들이 임업을 건전한 산업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나무 베는 것을 나쁜 일로 인식하며, 방임시키고 있는 사회적 환경이 문제입니다.

임업을 산업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사회 발전에 맞도록 기계화를 지원해야 함에도 목재 생산사업을 목재 생산업자에게 맡겨두고 스스로 시장을 개척하도록 방임시킨데서 임업기계화가 전근대적 상태로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생산비는 높고 소득이 낮은 목재 생산사업을 영세한 목재 생산 업체에 맡겨둬으로써 환경과 경관 훼손이 심한 굴삭기 이용 산털이 집재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벌도방향 수구각 자르기 작업 모습



벌도 작업 모습



멀티가선 집재 작업 모습

목재 생산사업의 기계화가 발전하려면 경영 단지화를 시키고 사업량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영 체계를 갖춰야 가능한데, 영세한 산주를 상대로 입목을 구입해야 하는 현행 산림경영 제도에서는 고성능 임업기계를 구입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국유림의 경우 간벌과 주벌 생산을 직영해야 기술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나, 기술 부족과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입목 매각 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국유림-기계화 영림단의 전문화 추진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기계 공급도 문제지만 기계를 이용한 작업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정부의 기술 지원 부족도 기계화 지연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Q.임업 기계화를 추진하려면 임도 시설이 선행되어야 할텐데?

산림경영을 하려면 기반 시설인 임도가 있어야 하고 기계화를 활성화시키려면 기계화 작업도 시설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돼야 합니다. 현실을 보면 운재로 시설과 복구를 생산 업체에 맡기고 있으니 생산비에 점유하는 시설 비용이 높게 되고 대신 산주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낮아 산림의 경제적 가치가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최대 수익을 얻기 위해 환경훼손과 경관 훼손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도망은 생산을 위해 필요한 도로일 뿐만 아니라 조림, 숲가꾸기, 산림보호, 주민들의 부산물 생산과 휴양활동에도 필요한 시설입니다. 임도는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지속하게 하는 도로이지 산림과 환경을 훼손시키는 길이 아닙니다.



멀티가선 집재 작업 모습

기계화 작업도는 목재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도로입니다, 임도라는 기반시설하에 작업도가 연결 시설이 된다면 노동 생산성을 높여서 산주에게는 소득증대를, 가공업체에게는 값싼 원료를 공급할 수 있으므로 가공산업과 바이오메스 에너지 이용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임도와 작업도 등 경영기반 시설을 갖춰줘야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산림 관리가 가능해지고 일터는 누구나 희망할 수 있는 산림 일자리로 발전돼 갈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임업의 사회적 자본에 해당됩니다. 임도가 없으면 과학기술적 산림작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Q.임업 기계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책은?

한국임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계획적 경영이 가능한 경영 단지를 구획하고 경영기반 시설을 하는 등 임업 진흥 기반을 조성해 줘야 합니다. 경영 단지별로 지세와 토양, 수종 등이 다양할 것이므로 이에 맞는 기계장비 보급과 작업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경영 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이들 계획에 따라 기계장비를 보급하는 제도와 전문기능인력을 양성해 기계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줘야 합니다.

임업 기계화 추진과 장비 보급을 위해 국내에 보급된 기계동력을 이용하는 생산 작업기계를 국산화시키면서 나아가 고성능 장비의 국산화도 병행해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산 임업 기계장비 개발과 인증하는 제도 발전에 이에 대한 투자를 높여야 합니다. 이들 장비의 보급과 더불어 이들 장비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젊은 기능인들을 양성·공급할 수 있는 임업 직업교육훈련 체계도 마련해 줘야 할 것입니다.

임업 기계장비 이용률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기계화 장비 지원센터의 운영, 임업장비 구입을 위한 보조와 용자 제도 개선 등 임업현장 현실에 맞는 제도가 개발돼야 합니다. 임업을 일반 기업과 동일시하는 정책으로는 임업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생산기계 사용 시는 연간 기계작업당 적정 사업량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줘야 생산장비 구입과 이용 효율을 높게 되고 기계화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산림·임업경영 체계를 정비해야 활력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Q.마지막으로 산림기술인과 한국산림기술인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조림사업과 숲가꾸기 사업은 숲에 대한 사랑과 올바른 지식으로 일하면 되는 사업이었으나, 앞으로 닦아올 간벌과 수확 생산 및 새로운 조림사업은 순환 경영을 체계화시키면서 경제적 경영을 해야 할 시대입니다. 경제적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계획과 사업 설계가 잘돼야 하고 기계화 작업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산림기술인의 직장 환경을 개선하고 기술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한국산림기술인회의 도지회를 산림작업과 기술 지원센터로 발전시키고 임업경영을 체계화시킬 수 있도록 경영 단지화를 시키며, 경영 주체자로서 산림기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책임성이 낮고 계획 관리가 전문화되지 않으며, 고 생산식 기계화 기술이 보급되지 않으면 한국 임업의 장래는 어두울 따름입니다. 특히 젊은 기술인들을 안정적이고 희망 있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산림기술인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단합된 모습을 국가사회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산림기술인들은 정부에서 주어진 산림사업 실행자이며, 머무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산림과 임업경영을 활성화시키고 진흥시키는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산림기술인의 직장을 행복한 직장, 꿈의 직장으로 닦아오게 될 것입니다.

기술인회의 각 도지회에서는 산림기술 선진화와 고용 안정화를 위한 기술 관리 모델링을 조성해 기술발전과 교육훈련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도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는 산림기술인들이 살아가는 길이면서 임업을 진흥시키는 길이 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산림기술인들은 천태만상의 산림을 관리하는 기술자입니다, 다양한 현상에 맞는 기술과 작업을 해야 하므로 응용할 수 있는 능력, 산주와 시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 등 지역사회를 경영관리하는 전문가들이 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춰나가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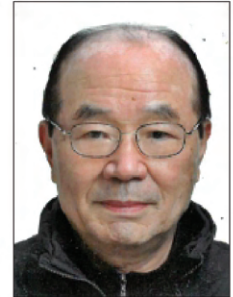


말구 종구 작업 모습



간벌사업지 작업 완료 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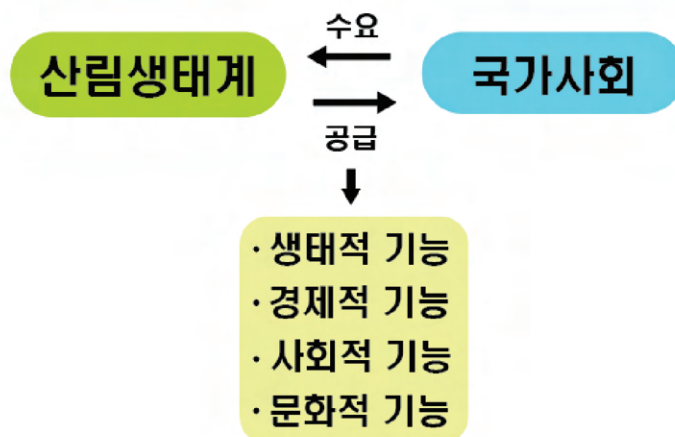
산림기술인들이 알아둬야 할 산림 철학



한국산림기술인회 자문위원(자문단)
마상규 자문단장

01 산림생태계의 기능 진단과 가치 생산

산림기술인들은 산림경영과 산림사업을 실행 시 산림생태계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진단하고 그 기능이 가능한 최대로 유지·증대될 수 있게 관리하는 전문가이다. 산림은 나무들로 구성된 숲을 뜻하며, 산림 생태계는 숲과 연관돼 살아가는 모든 동식물과 인간의 활동 그리고 입지환경을 총합한 집단을 말한다. 산림생태계의 가치와 인간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능 간에 다음과 같은 수요·공급 관계가 있다.



〈사진1〉 산림생태계와 국가 사회의 수요·공급 관계

산림의 생태적 기능은 기후조절, 수자원 함양, 토양보전과 재난예방, 종다양성과 유전 자원 보호, 물질생산과 미세먼지, 소금과 바람 등으로부터 인간의 삶을 보호하는 기능을 뜻한다.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생태적 보호 기능을 얼마나 가치있게 발휘되는지를 진단하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 예컨대 지구온난화예방을 위해 탄소 흡수 저장 기능은 충분한지, 수자원 함양과 조절 기능은 합리적인지, 토양침식은 예방되고 산사태 예방 기능은 완전하며 그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지를 진단해 기능이 이상적으로 실현되게 공급시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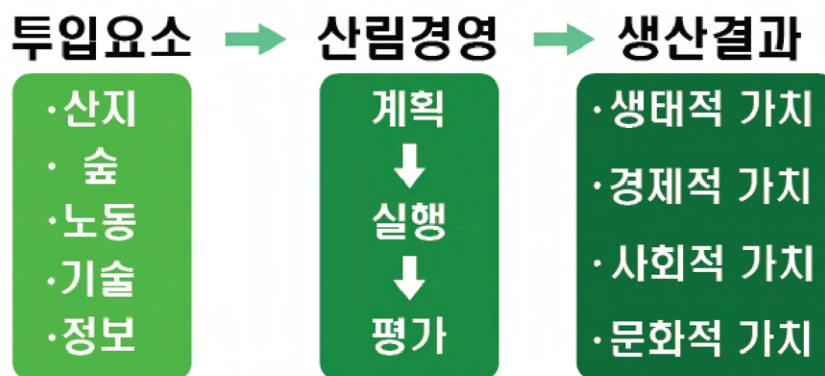
경제적 기능에는 재산 기능, 원료 공급, 소득 기능이 있다. 재산으로서의 가치, 원료 공급과 소득으로서의 가치 생산 즉 경제 기능이 합리적인지 진단해 재산가치 증식, 원료 공급 증대, 소득성 증대책을 관리해야 한다. 예컨대 산림축적이 165m³/na 일시 재산 기능으로 적정한지 아니면 300m³/na까지 증대시켜야 할지를 진단해 관리책을 세워야 한다. 현재 목재 공급량을 보면 연간 0.7m³/ha으로서 잠재력보다 크게 낮게 생산하고 있는 등 경제적 공급 기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원료 공급과 소득 기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간벌과 수확 갱신 사업량을 늘리면서 원목의 가치를 높여갈 수 있는 산림생산성 관리를 해야 된다. 산림의 사회적 기능은 산림경영에 국민을 고용하는 사회적 가치 생산을 뜻한다. 산림 고용에는 정책 및 행정 경영관리에 종사하는 고용과 산림작업에 고용하는 유형이 있다. 선진 산림국의 사례에 의하면 산림기사는 1인/500ha, 산림기능인은 1인/100ha 비율로 고용되고 있다. 산림의 경제사회 기능을 진단해 가치 생산량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대안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의 문화적 기능에는 산림경관 풍치, 산림휴양 치유, 산림관광, 산림교육, 장례사업, 산림 정원 등 다양한 서비스 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산림휴양서비스는 ha당 1일 1인 이상 방문 시에는 휴양기능이 있는 숲으로 관리하게 된다. 예컨대 도시숲은 휴양기능이 있고, 임도 시설이 되면 휴양림으로의 가치가 증대되게 된다. 산림기술인들은 산림생태계 기능을 진단 시 지역사회 수요를 진단해 이에 맞는 공급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지역 산림생태계가 얼마나 지역사회 수요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경영관리 대책을 세워 실천하는 기술인이 돼야 할 것이다. 산림정책의 주된 임무는 산림생태계 가치 생산과 지역사회 수요를 만족시켜 주는 데 있으며, 이는 산림기술인들의 기본 임무다.

02 산림경영 사상

산림경영이란 산림생태계와 국가 사회 간에 수요공급을 관리하는 기법으로, 그 결과는 생산성이라는 가치로 나타나게 된다. 산림경영 시 투입과 산출만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요약이 된다.



〈사진2〉 산림경영 시 투입과 산출만의 관계

산지와 숲은 산림생태계의 공급에 관한 요소이고 노동기술과 경영에 투입되는 다양한 정보는 사회적 수요 요소다. 산림기술인들은 경영관리를 통해 다양한 가치를 생산하고 국가 사회 수요를 충족시키는 전문인력이다. 산림경영의 생산성은 수입 대비 생산 결과로 평가되게 되고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 사상을 갖고 임하게 된다. 첫째는 생명관리에 대한 사상이다. 모든 생명은 나무를 타고 내려왔다는 우주목사상과 단군신화에도 나타나는 신단수 사상에서 보듯이 숲은 생명의 근원이고 삶의 근원이다.

산림생태계를 관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관리하는 것이므로 산림경영은 생태적 가치가 지속되게 관리하는 생명관리 사상을 밑바탕으로 해야 한다. 경영 수종은 도입 수종보다는 향토수종 중심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다양한 생명체들이 살아가기 위해 단순림보다는 혼효림으로, 항상 숲이 존재하도록 모두베기보다는 다층림으로, 어린 나무와 늙은 나무가 고루 분포하도록, 그리고 습지 및 야생동물 서식지 등 Biotop은 보호되도록, 토양의 비옥도와 생산력이 보전되도록 하거나, 화학비료와 농약 등 화학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등 생명관리 사상을 기본으로 하는 경영 기법을 선택 투입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산주와 지역사회 주민들이 산림생태계와 더불어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도록 해 지역사회가 지속될 수 있게 하는 행복 관리 사상을 갖추고 응용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재와 부산물 생산은 일자리와 소득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임산물 가공산업에서는 원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아름다운 경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산림문화 서비스 환경이 제공된다면 인간들의 삶의 공간이 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산주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사회가 행복한 산림경영 기법을 선택해야 한다.

산림을 행복한 삶터, 일터, 쉼터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에 갈등이 없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평화로운 경영관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산주와 지역주민, 목재 생산업과 환경보호단체, 산림사업법인단체 간에 갈등이 있게 되면 산림 및 임업경영은 정체된다. 평화로운 경영을 위해서는 경영의 단지화와 조직화 그리고 경영 의사 결정의 합리화를 통해 조정해 나갈 수 있는 평화로운 산림경영 사상이 발전돼야 한다. 산림·임업경영 시 생명관리, 행복 관리, 평화관리라는 사상을 밑바탕으로 해 전문적으로 경영관리를 해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산림·임업경영 시대로 발전돼 갈 것이다.

03

희망의 숲인 이상림 가꾸기

우리나라 숲은 고려 시대까지만해도 na당 축적이 300m³이 되는 활엽순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조시대를 거치면서 소나무림으로 후퇴 천이를 하고 결국은 산림 황폐화가 이뤄진 역사가 있었다. 지난 50년간 치산녹화사업과 연료의 전환에 따라 현재는 산림축적이 165m³/na에 이르는 산림 녹화 성공국이 돼 있다.

1차적으로 산림이 생태적 기능과 경관적 기능은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을 하였으니 우리가 생각하는 희망 있는 숲으로 발전돼 가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산림의 구로가 희망하고 있는 이상적 산림구조를 갖췄을 시 이를 이상림(정상림, 법정림)이라 한다, 산림기술인들은 이상림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유도해 나가야 할 시기에 있다. 앞으로 반세기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상림은 국가에서 고려해야 할 형태와 경영 단지별로 지역 상황을 고려한 형태가 있게 되지만 주요 고려 사항은 경영수종, 생산목표 직경(또는 벌기령), 목표 축적, 영급별 면적 및 연간 생산 목표량 등이 있으며, 지속성을 갖추고 있는 산림을 뜻한다. 먼저 경영수종으로는 경제성을 고려해 침엽수종을, 생태성을 고려해 활엽수종을 선정하고, 조성 비율을 정하고 유도해 나가야 한다. 거시적으로는 조성 비율이 각각 50%가 이상적이다. 경제적 가치생산이 높은 지역에서는 침엽수 비율을 높여주도록 한다. 그 이유는 침엽수 생장량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지위 1급지에서의 총평균 생장량은 다음과 같다.

강원소나무

14.1m³/ha

낙엽송

10.4m³/ha

상수리

6.0m³/ha

신갈나무

4.8m³/ha

〈사진3〉 지위 1급지에서의 총평균 성장량

다음으로는 생산목표 직경과 벌기령을 설정해 시간 관리를 할 수 있게 한다. 고급 목재 생산목표가 있을 시에는 생산직경이 40cm를 넘어야 하고 벌기령은 100년이 돼야 한다. 이 경우 침엽수와 활엽수 조성 비율을 각각 50%로 설정 시 축적 관리 목표는 300m³/ha가 될 수 있다. 공업원료 생산을 목표로 단벌기 생산도 고려할 수 있으나, 토양의 생산력 유지와 종다양성 유지 및 소득성이 낮은 문제도 내재돼 있다. 목재 생산 공급을 위해서는 지속적생산 구조를 갖춰 주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병급별 면적 비율을 동일하게 하거나, 노령림 비율을 높여서 관리할 수도 있다. 동일 면적에서 지속 생산을 할 수 있는 산림구조에는 골라베기(택벌) 방식도 있다. 한국은 이상적인 산림구조에 대한 모델을 지역별로 개발해 경영목표로 삼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나라 산림은 녹화성공림에서 지속 생산이 가능한 이상림으로 유도해 나가야 할 시기다. 건강한 우량형질림을 가꾸기 위해서는 간벌(숙아베기)이 확대 돼야 하고 수종정비와 영급정비를 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상림으로 가꿔갈 수 있는 경영목표를 지역별로 설정하고 유도하는 계획적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50년은 산림녹화와 자원화 시기였다면 앞으로 50년은 다음 세대에 넘겨줄 이상림(희망의 숲)으로 유도하기 위한 산림경영 시대로 진화 발전시켜 나가야 가능할 수가 있다. 지방정보는 지역 산림경영계획과 시군 산림경영계획을 수립·운영 시 지역에 맞는 희망의 숲 모델을 설정하고 유도해갈 수 있는 경영관리 방법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는 지역 거주 산림기술인들이 추진해야 할 과제다.

🚨 산림기술자 자격증 대여 및 이중취업 위법행위 근절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천만원 이하 벌금**

최근 국가기술자격증 자격 대여 종류가 다양하게 확대되는 등 불법 대여가 지능·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기능사 등 국가 기술 자격증을 대여해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로 인해 자격의 공신력 저하, 자격증 취득자의 고용 저해, 산림사업 부실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을 대여해 준 사람은 자격증이 취소되고 일정 기간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격증을 빌린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격증을 대여받아 산림사업 법인을 등록했다면 등록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또 자격증 대여뿐만 아니라 산림기술자 자격이 필요한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 취업한 경우에도 자격이 취소됩니다.

어떤 경우든지 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을 불법으로 내 자격이 어디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허다하며,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이 다른 사람과 사회 전체에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임업계 및 산림기술자분들께서는 산림사업의 품질 향상과 산림기술 발전을 위해 **이중취업 및 자격증 대여 등 위법행위 근절에 동참해 주세요!**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란?

법을 위반해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를 말합니다.

❌ 산림기술자 이중 취업이란?

법을 위반해 산림기술자 자격이 필요한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해 취업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법행위인가요? ❓

- | | |
|---|-----------------------------|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경우 | 01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에 해당(위법행위) |
|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업체 | 02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에 해당(위법행위) |
| 타인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 03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에 해당(위법행위) |
| 산림사업법인에 고용돼 있으면서 산림기술자 자격이 요구되는 직무 수행을 위해 다른 업체에 취업 | 04 >>> 산림기술자 이중취업에 해당(위법행위) |

자주 하는 질문



Q. 국가기술자격증은 대여했지만, 관련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괜찮지 않나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자체가 불법으로 위법에 해당합니다. 어떤 경우든 자격증 대여는 안됩니다.

Q.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알선한 자는 산림기술자 자격 취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산림기술자 자격이 필요한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 취업한 경우에도 산림기술자 자격이 취소되며,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산림기술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신고처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신고대상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사용자,
대여알선자

신고방법 경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민원신청)서식민원)국가기술자격)
부정행위 신고서 활용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참여공간)고객의 소리)민원신청하기)
자격증 불법대여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

신고 건당 50만원
(동일인 기준 연간 최대 300만원)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 1건으로 간주
적발에 기여 정도 고려해 배분

신고한 부정행위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고용노동부 장관이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지급

포상금 지급제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 수혜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을 통해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신고한 경우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직·간접
정보를 이용해 신고하거나 그 정보를 제3자
에게 제공해 신고하도록 한 경우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례를
신고하거나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내용을
신고한 경우

🚒 위급상황에는 어떻게? 🚒

"현직 소방관에게 직접 듣는 구급용품 사용법"



산림작업 현장에서 위험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사고를 당할지 모르며, 같이 일하는 동료 아니면 나의 지인 또는 나 자신이 언제든지 위급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구급차 출동이 어려운 외진 산속 작업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대부분은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는 산속이라는 작업 현장 특성상 사고 발생 시 발견이 늦을뿐더러 신고 자체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현장에서든지 구급용품이 구비돼 있고 사용방법만 숙지하고 있다면 재난 및 재해 등 사고 발생 시 생존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산림기술인회는 현직 소방관에게 직접 위급상황 시 구급용품 사용방법을 전해 듣고 이를 시리즈로 제작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의 외래교수이자 대전소방본부 예방안전과에서 근무중인 차윤영 소방위가 첫 번째로 소개하는 구급용품은 '응급담요'입니다.

응급담요란?

보온과 단열을 위한 비상 생존용 담요로 체온유지, 우천, 방수, 방풍 등의 효과가 있어 야외활동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작은 사이즈와 가벼운 무게로 휴대가 편리합니다.

차윤영 소방위가 전하는 응급담요 이야기!



우리나라에서 비상담요, 은박보온담요, 서바이벌 슈트 등으로 부르는 이 제품은 해외에서는 스페이스블랭킷, 써멀블랭킷, 마일라블랭킷 등 다양한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담요는 1964년 나사에서 우주 공간에서 사용하기 위해 처음 개발했고, 얇은 플라스틱 필름 재질에 알루미늄 증기를 뿌려서 박막으로 입혀 제작하는 것으로, 당시의 원제품은 복사열을 96% 이상 반사하는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착안해 현재는 비상용 담요, 동계 의류, 침낭 등의 보온재 일부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그 원리를 보면 바람막이 효과로 땀 증발을 막음으로써 대류 체온 손실을 막아 체온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복사열을 반사하는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에 자신의 체온이 반사돼 따뜻함이 유지되는 원리입니다. 각종 매체에서 재난현장, 혹은 구조·구급현장 활동 장면이 나올 때 보면, 구조된 사람들이 비상담요를 뒤집어쓰고 있거나, 구급대원이 구출한 환자들을 비상담요로 툭툭 감아주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담요의 장점을 살펴보자면 첫째로 초경량에 부피가 매우 작다는 점입니다. 접혀있을 때는 손바닥만 한 크기였다가, 완전히 펼치면 160×210cm의 면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성인 환자 한 명의 전신을 완전히 감싸기에 부족하지 않은 크기고, 무게는 몇 그램 수준으로서 거의 무게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가볍습니다.



두 번째로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필자가 1)생존주의에 심취해, 산과 계곡을 헤매고 다니던 시절에는 이 제품도 다른 야영장비들과 마찬가지로,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구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지금은 개당 500원에서 1000원 정도면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으니, 가격대 성능비를 고려하면 최고의 장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1) 생존주의: 위기상황에 대비하자는 이념. 여러 재해에 대비하여 식수, 식량, 연료, 자금, 무장, 안전가옥과 각종 방호장비 등을 장만하고 그 사용법을 숙달하는 것이다. (출처=나무위키)

그래서 부담 없이 누구에게나 이 제품을 비상용품으로 소개하는데 거리낌이 없고, 제 스스로도 비상대비용품 가방에 한두 개씩 꼭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얇은 필름 재질로 제작되다 보니 쉽게 찢어지는 등 내구성은 형편없지만, 이 저렴한 가격 덕분에 일회용으로 사용해도 될 만큼 활용도가 높다 하겠습니다. 저체온증이 걱정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복사열 반사를 통해 체온 손실을 막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체온으로 따뜻해진다는 말과 같습니다. 꼭 환자를 돌보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추운 날씨에 열원이 없는 장소에서 오랜 시간 머물러야 되는 경우라든지, 여름철 수해를 입어 몸이 물에 젖은 상황에서도 이 제품은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사진으로 살펴보기





퀵 인터뷰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의 외래교수 및
대전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차윤영 소방위



Q. 현재 소속과 직책, 맡은 주요 업무는?

지난 7월 10일 자로 대전소방본부 예방안전과 119 시민체험센터로 인사이동 됐으며, 이전에는 대전둔산소방서 예방안전과 체험교육팀에서 시민 응급처치 교육을 담당하며 ▲화재 시 대피요령 ▲119 신고요령 ▲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을 주로 교육했습니다.

Q. 산림 작업 현장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꼭 구비해야 할 구급용품은?

저는 멸균거즈를 말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상처가났을 시 멸균거즈가 아닌 아무 천이나 사용하면 분명히 감염 때문에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멸균거즈를 사용하면 상처에 안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아 상태 악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기억에 남는 산림 작업 현장에서의 사고 사례가 있나요?

출동하는 구급대원 입장에서 봤을 때 산림작업 현장에서 사고 발생 시 환자가 있는 곳까지 가는 여정이 너무 힘들고 복잡합니다. 특히나 산림 현장은 도시처럼 어떤 건물이 있다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형적인 특징이 없다는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실제 산림 작업 현장으로 출동했을 때 안내인이 없어 찾기 어려웠고 또한 접근하기도 어려웠다는 점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마지막으로 위험 요소가 있는 작업 현장 근로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예전에는 안전벨트를 안 매고 운전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생활화되고 습관화되니까 지금은 운전자 모두 안전벨트 매는 걸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위험 요소가 있는 작업 현장의 근로자들께서도 응급처치법 등 위급상황 시 요령 등에 대한 지식들을 조금씩 점점 더 갖춰 나가면 앞으로 상식이 되는 날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10개가 있는데 한가지도 실천에 안 옮기면 생존율을 높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산림 작업 현장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는 산 입구 초입에 기점이 될 수 있는 표식 또는 팻말을 세우거나 일하고 있는 위치를 GPS 좌표로 평상시에 캡처해 두는 것이 있습니다. 또 휴대폰 통화가 잘 안되는 지역에서 작업을 한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휴대폰이 터지나 미리 확인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모두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행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한다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교육통합시스템

방문후기

작성 이벤트

기술인회 뉴스레터 EVENT



이벤트 기간 2023년 7월 28일(금) ~ 8월 18일(금) 자정까지

참여 대상 2023년 연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당첨자 발표 2023년 8월 28일(월) ※선정자 개별 알림톡 통보

이벤트 경품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1잔(추첨 통해 당첨자 5명 증정)

- 참여 방법**
1.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교육통합시스템 홈페이지를 꼼꼼하게 둘러본다.
 2. 방문 후기를 한국산림기술인회 카카오톡 채널 이벤트 게시물 댓글창에 남긴다.

※ 댓글 작성 시 필수사항

- 한국산림기술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중 하나 기재
- 짧고 간단한 방문후기 글
- 이름 및 생년월일(6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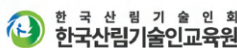
예) 안전보건교육, 직접 방문해 보니 교육이 다양했어요, 홍길동(800516)

▶ 순서 1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검색 또는 카메라로 QR코드 스캔 후 접속

▶ 순서 2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기

▶ 순서 3



카메라로 QR코드 스캔 후 한국산림기술인회 카카오톡 채널 이벤트 게시물에 방문 후기 남기기

산림 헤드라인 뉴스

FOREST HEADLINE NEWS

01 극한 호우 최대 피해 임산물은 '대추'...최대 작물 피해지 '충남' 출처 : 뉴시스

02 8개 시도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시설피해 8천500건 출처 : 연합뉴스

03 “사망 산사태 7곳 중 5곳은 개발지 탕” ...임도 · 개간 다수 확인 출처 : KBS

04 부녀 매몰돼 숨진 풍기읍 현장인근서 나무 236그루 '불법 벌목' 출처 : 뉴스1

05 경북도, 산림인재 양성 본격화...산림사관학교에 75명 첫 입학 출처 : 뉴시스



한국산림기술인회
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

기술인회 뉴스레터 제4호 EVENT

빈칸 맞추기 이벤트

정답 & 당첨자 발표

정답

산 림 기 술 자

※ 당첨자는 7월 28일 이후 개별 안내문자 발송 예정입니다.

산림관련 법령정보

최근 일부 개정된 산림 관련 법령을 알려드립니다!

더 많은 법령정보는 한국산림기술인회 홈페이지(www.tkfea.or.kr)
[열린마당] - [자료실] - [법령정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접속 QR

※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 인식 시 법령정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산림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6. 28.] [대통령령 제33549호, 2023. 6. 20., 일부개정]

「산림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림정장은 산림·도시숲 자원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산사태·산불 등 산림재해의 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 등을 진화한 산림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 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산림 및 임업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산림·도시숲 자원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
2. 산림의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3. 산사태·산불·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대응 및 복구·복원에 관한 사항
4.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수출에 관한 사항
5. 산림복지의 증진에 관한 사항

출처 : <https://www.law.go.kr/법령/산림기본법시행령>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2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94호, 2023. 6. 26., 일부개정]

나무병원에 대한 영업경지 처분을 감응해 부과하는 과징금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기간을 정하는 한편, 나무병원이 나무의사 등의 선의에 관한 변경 사항을 변경등록해야 하는 기간을 완화하고, 나무의사 및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 발급 방법에 상장증을 추가해 자격증의 활용도를 높임.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영 제12조의1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16서식에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 증명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 ②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하는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격은 4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출처 : <https://www.law.go.kr/법령/산림보호법시행규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산림자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3. 6. 2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96호, 2023. 6. 27., 일부개정]

중요생산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기간 등을 정하고, 사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 입목벌채 등의 사전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벌채구역 지역·지구 지정현황을 조사하도록 하는 등 입목벌채 등의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이미 벌채된 지역과 연결해 벌채를 하는 경우에는 벌채구역 면적에 따라 20미터 이상 또는 3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이미 벌채된 구역과 연결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조림사업 준공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거나 골라베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① 벌채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이미 벌채된 구역에서 잔존부분을 제외한 지역으로부터 30미터 이상
- ② 벌채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5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이미 벌채된 구역에서 잔존부분을 제외한 지역으로부터 20미터 이상

출처 : <https://www.law.go.kr/법령/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산림자원법 시행령)

[시행 2023. 6. 28.] [대통령령 제33582호, 2023. 6. 27., 일부개정]

중요생산업자의 과징금 부과기준·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리업무대행이 가능한 산림사업 및 기관·단체 등을 정하는 한편, 산림사업법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나무병원이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자본금 기준을 경감.

▶ 주요내용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의 사업범위 및 주제(제23조의3 신설)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산림사업을 임도사업,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하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기술인회 등으로 하여금 산림사업 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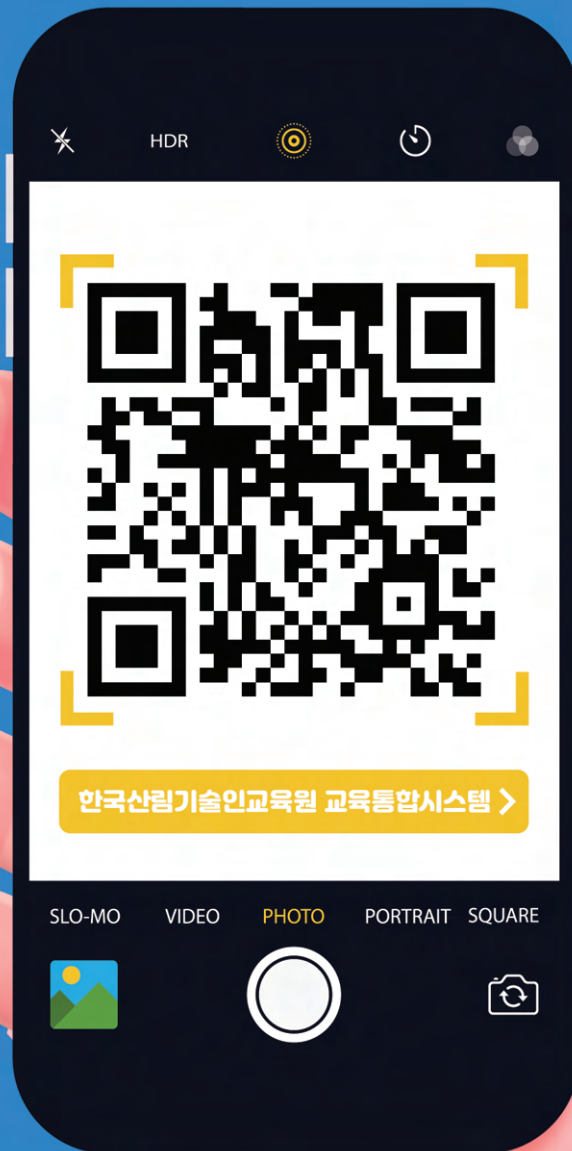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완화(별표 2)
산림사업법인이 다른 종류의 산림사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보고, 나무병원이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려는 경우 자본금의 일부와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봄.

출처 : <https://www.law.go.kr/법령/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이제 간편하게 접속하세요」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교육통합시스템’ 바로가기 QR코드 생성

지금 휴대폰으로 QR코드를 바로 찍어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교육통합시스템’에 바로 접속해보세요



한국산림기술인회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The Korea Forest Engineer Education Institution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2023년 하반기 법정교육' 교육생 모집

오프라인 및 온라인 각 과정별 총 240명...산림기술자 법정 의무교육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이 산림기술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 습득을 위한 '2023년 하반기 법정교육'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하반기 교육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산림기술자의 양성 등)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거한 것으로, 7월 17일부터 오는 11월 24일까지 교육일정에 맞춰 진행합니다. 교육과정은 기본교육과정 2개와 전문교육과정 5개 등 총 7개로 구성됐으며, 세부적으로 ▲산림경영기술과정 ▲산림공학기술과정 ▲녹지조경기술과정 ▲산림경영기능과정 등이 있습니다.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실시간 교육)을 병행해 운영하고 ▲오프라인 20명 ▲온라인 220명 등 각 과정별로 총 24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교육비는 교육시간별로 상이하며, 교육신청은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교육통합시스템(www.tkfeaedu.com)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생 모집 포스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은(1533-5160)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한국산림기술인회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하반기 법정교육 교육생 모집

산림기술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

-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 ✔ 「산림기술자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제3조·제4조

모집과정	교육시간	접수기간	교육기간
기본교육	35시간	수시 접수	7월 17일 ~ 7월 21일 10월 16일 ~ 10월 20일
경영기술	35/20/15시간		9월 18일 ~ 9월 22일 11월 13일 ~ 11월 17일
경영기능	35시간		11월 20일 ~ 11월 24일
공학기술	35/20/15시간		9월 11일 ~ 9월 15일
녹지조경	35/20/15시간		10월 23일 ~ 10월 27일

- ✔ **교육신청**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교육통합시스템 www.tkfeaedu.com
- ✔ **문의전화** 1533 - 5160 ①법정보수교육 안내 ②안전보건교육 안내 ③전문/자체교육 안내
- ✔ **교육방법** 온·오프라인 (실시간 교육)



한국산림기술인회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The Korea Forest Engineer Education Instit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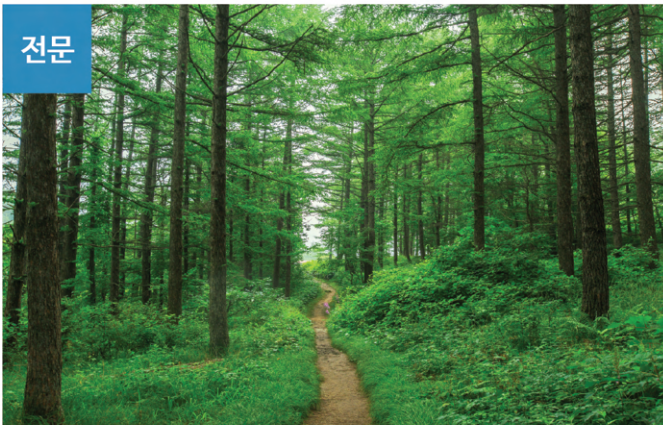


2023년 제1기 사면안정해석 실무교육과정 교육생 모집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목으로써 기초역학의 이해, 사면안정해석 등 전문교육과정

1일차 정역학, 토질역학, 유체역학 **2일차** 사면안정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습교육 진행

- **대 상** 산림기술자, 단체기관 실무자
- **일 시** 8월 9일 ~ 10일(2일간)
- **교육비** 250,000원
- **신청방법** 수시모집 /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교육통합시스템 www.tkfeadu.com
- **장 소** 대전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 **문의전화** 1533-5160



전문

실시간 강의 온라인 오프라인

제 2기 산림공학기술 전문과정

접수 2023.09.08(금) 까지 tkfeadu.com에서 신청

일시 2023.09.11(월) ~ 09.15(금)

장소 대전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전문

실시간 강의 온라인 오프라인

제 2기 산림경영기술 전문과정

접수 2023.09.15(금) 까지 tkfeadu.com에서 신청

일시 2023.09.18(월) ~ 09.22(금)

장소 대전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우리 회사를 소개합니다

산림 및 임업 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회사를 찾아 대표자의 남다른 경영철학과 기술 및 사업을 소개해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도 업체 운영에 있어 경영방침, 목표, 핵심가치 등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한 인터뷰 형식으로 담아 정회원분들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회원은 업체명과 간단한 소개를 작성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내부 검토 후 선정해 다음 호 뉴스레터에 담을 계획입니다. 업체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접수방법 담당자 이메일 접수 (shekdms@tkfea.or.kr)

결과발표 선정 업체는 개별 연락 예정

※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가 있을 시 042-489-855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변경신고·휴폐업신고 공고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림기술인회 홈페이지 - [공지사항]
또는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소통광장 - 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tkfea.or.kr

회원동정



한국산림기술인회 회원 여러분들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홈페이지 [커뮤니티] 게시판에 언제나 등록해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www.tkfea.or.kr

한국산림기술인회 뉴스레터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산림기술자의 복리증진, 권익보호, 산림기술진흥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자 합니다.

뉴스레터를 통해 알리고 싶은 소식을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로 언제나 전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담당자] 노다운 사원 / E. shekdms@tkfea.or.kr / T. 042-489-8551

작은 소식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band.us/band/81351345>



<https://blog.naver.com/tkfea1234>



https://pf.kakao.com/_xIVUJK

